

‘케이캡정’, 위궤양 적응증 건보 혜택

HK이노엔 이달부터 보험급여 적용
위궤양 유효성·안전성 종합 검토
매출 증가·시장 지위 확대 기대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난다. 매출 증가와 시장 지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케이캡정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이달부터 위궤양 치료 시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허가 받은 총 4개의 적응증 중 3번째 적응증에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케이캡정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식도역류질환신약케이캡정은 국내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요법 등 총 네 개의 적응증에 허가 받았다.

2019년 국내에 출시될 당시 케이캡정은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시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HK이노엔

됐지만, 이 달부터 위궤양 치료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 적용 확대 과정에는 위궤양에 대한 케이캡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한 임상 문헌뿐 아니라 교과서, 관련 학회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케이캡정은 기존 PPI계열 제품 대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전, 식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그리고 우수한 약효 지속성으로 밤 중에 위산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특징점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케이캡정 혼자서만 이룬 누적 원외처방실적은 781 억원이다.

케이캡정은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국산 신약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벌이고 있다.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등 주요 적응증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매년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3상),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s) 유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요법(3상) 등의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사용범위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카시안(백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며 글로벌 임상시험 근거자료를 확보 중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약 9500억원 규모 전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최단 시간 블록버스터 신약에 등극한 케이캡정의 지위가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케이캡정이 더욱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종합평가 ‘A등급’

바이오 기업 최초 통합 A등급 획득
신규 공장, 자원순환형 사업장 구축

삼성바이오로직스가바이오 기업 최초로 ‘2021년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발표하는 ESG 평가는 국내 765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평가에서 전 부문 A등급 이상을 받았다. 사회적 책임경영 부문은 A+, 환경경영과 지배구조 부문은 A등급을 받으며 지난해 B+등급 대비 향상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먼저 환경(E) 부문에서는 바이오 제약 업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글로벌 표준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도입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했다. 사업장 내에서는 LED조명 교체, 전기차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했으며,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와 금융감독원의 기후환경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프로젝트 ‘프론티어-1.5D’에 참여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규 공장에는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친환경 냉매를 적용하는 등 자원순환형 사업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S) 부문에서는 업계 청소년 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산학 협력 및 장

학 멘토링 지원, 소외 계층 의료 및 보육 지원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또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기술협력을 체결하고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며, 협력사의 ESG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사 행동 규범을 도입했다.

지배구조(G)부문에서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했다. ESG 위원회는 경영·경제·생명공학·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사회이사로 구성됐으며, ESG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이해관계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대응계약, ‘이노베어 창업스쿨’ 공모전 개최

계약·바이오 분야 창업자 발굴

대응계약이 제약·바이오 분야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킬 창업자를 찾는다.

대응계약은 ‘이노베어 창업스쿨 공모전’을 개최하고 12월15일까지 응모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 또는 기업가를 선발하고 사업화 노하우를 전수해 창업을 돕거나, 기술이전 또는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거나, 창업 초기

에 드는 초기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관심기술 6개 분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 ▲항암·자가면역·섬유증질환 합성신약 파이프라인 및 플랫폼 기술 ▲신규 모달리티 신약 ▲약물 전달 플랫폼 ▲디지털 치료제 ▲줄기세포 플랫폼이다. 위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연구자 또는 기업가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기업·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분야는 총 3가지로 대응계약의 창업 지원을 통해 1년 내 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 패키지’, R&D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만을 희망할 경우 ‘씨앗 패키지’,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에 시드투자를 지원하는 ‘초기투자 패키지’가 준비돼 있다.

대응계약은 서류심사와 비대면 1차 평가,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2022년 1월 최종 선정 대상자를 발표한다. 선정된 개인 혹은 법인은 2022년 2월 이후 계약을 맺고 대응계약 본사 및 연구소에 입주해 1년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 3분기 영업익 715억 ‘역대최대’

매출 4657억... 전년비 11% ↑

GC녹십자가 지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GC녹십자는 올해 3분기 잠정 경영 실적(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 4657억원, 영업이익 715억 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41% 증가한 수치다.

특히 GC녹십자의 분기 매출이 4600 억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매출총이익률은 39.8%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5.8%포인트 끌어올렸다.

연구개발(R&D) 투자를 34.2% 늘리는 동안 주력 백신과 처방약품 부문의 성장 폭을 키워 수익성도 잡아냈다.

부문별로는 혈액제제 사업 매출이 1096억원, 백신 1043억원, 처방약품 978억원, 소비자헬스케어 등 기타가 65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처방약품 사업 부문 실적은 32.6% 외형이 커졌다. 희귀약 헌터라제 해외 실적이 두배 이상 성장한 덕분이다.

이와 함께, 3분기 독감백신 국내 매출은 925억원을 기록하며 예상대로 호 실적을 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연결 대상 상장 계열사들도 준수한 성적표를 내놓았다. GC녹십자랩셀은 해외 기술이전료의 본격 유입으로 매출 383억원, 영업 이익 103억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GC녹십자웰빙 주사제 매출 성장 및 건기식 사업 개편으로 실적 호전세를 보였다.

/이세경 기자

다시 일상으로... 아우터 등 외출복 판매 ↑

신세계인터 여성복 중심 매출 회복세

코로나19로 매출이 움츠러들었던 국내 여성복이 단가가 높은 아우터 위주의 판매가 늘며 매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여간 재택 근무를 하며 편안한 원마일웨어, 라운지웨어 등을 소비하던 고객들이 출퇴근에 필요한 옷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자사 여성복 브랜드 보브, 지켓, 스튜디오 톰보이, 텐먼스의 10월 22~31일까지 열흘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대표 여성복 브랜드 보브(VOV)는 지난 열흘 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신장했다. 특히 보브 판매 순위 10위 내 제품이 모두 재킷류일 정도로 아우터가 브랜드 매출을 주도했다. 가벼운 구스다운 패딩을 비롯해 가죽 소재의 재킷과 블루종, 여성스러운 정장룩에 어울리는 트위드 재킷이 인기를 끌었다. 이번 시즌 대표 제품인 크랙 다운 베스트(조끼)는 이미 준비된

수량이 대부분 다 소진돼 두 색상 모두 1차 재생산에 들어간 상태다.

시즌리스 콘셉트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텐먼스(10MONTH)는 같은 기간 매출이 53% 급증했다. 텐먼스는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오피스룩으로 활용도가 높은 기본 상의 아이템들이 매출을 견인했다. 보온성이 좋은 터틀넥 티셔츠와 스웨터, 라운드 티셔츠, 가디건 등의 이너 제품 매출이 동기간 100% 신장했다. 이와 함께 텐먼스의 베스트 셀러 제품이자 정장의 정석인 마스터핏 슈트 재킷, 편안하고 활동성 높은 와이드 핏 스타일의 정장 팬츠가 사무실 출근을 앞두고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여성복 지켓(g-cut)은 동기간 경량 패딩이 큰 인기를 끌었다. 자사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S.I.VILLAGE) 내 브랜드 판매 순위 1~10위를 모두 패딩이 차지했는데, 여성스러운 퀴팅 패턴에 영덩이를 덮지 않는 짧은 크롭 기장의 제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남양유업 ‘패밀리 장학금’ 1억 지급

남양유업이 대리점주 자녀 75명을 대상으로 ‘패밀리 장학금’ 1억 원을 지급했다.

남양유업 패밀리 장학금은 대리점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만든 상생 정책 중 하나로, 2013년 유업계 최초로 시행돼 9년째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817명의 대리점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가운데, 누적 지급액만 10억8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남양유업은 전국 대리점과의 소통을 위한 상생회의를 13년 이후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영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와 업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제’ 등 상생경영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은미 기자



‘투썸 벽난로 램프’ /투썸플레이스

투썸플레이스 “LED 벽난로 램프 드려요”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겨울 시즌을 맞아 벽난로 램프를 증정하는 스탬프 적립 이벤트를 실시한다.

투썸플레이스는 2일부터 21일까지 겨울 시즌 음료 2잔을 포함해 제조 음료 총 8잔을 구매하고 스탬프 적립을 완료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고객 사은 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투썸 벽난로 램프’는 LED로 실제로 모닥불이 타는 듯한 움직임을 재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